

# 이렇게 들었다

## 또 권력형 비리

### 이 시대 청백리 없는가

"나라의 중신이 직무무태만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쟁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법구경>

또다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이윤호 게이트'다. 지난번 웃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윤호 게이트는 자연·화연으로 맺어진 정치인과 검찰, 경찰 간부 등 이른바 정·관계의 실세들이 고루 연루되어 있다.

밤을 수호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 '법법'의 비호세력으로 의심받았다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의 두루두루 봐주고 뇌물을 챙기는 관행은 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건교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친동생이 떼뻑하지 못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뇌물을 받았다면 어떤 국민이 그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벼슬자리에 나가면 그동안 이별한 셈 쳐야 한다"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을 들먹이기에도 아깝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무책임성은 조선시대의 청백리(淸白吏) 제도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청백리 제도는 조선조에 관리들 중에서 청결결백한 사람만을 선발하여 후세에 길이 거울삼게 했던 관 기속정(官紀肅正)을 위한 제도였다. 여기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임급의 재가(裁可)를 얻어야 했다. 또 녹선(錄選)이 되면 그 자신들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전도 주어졌다. 그러나 숙종 이후로는 이들 청백리의 자손이 너무 불어나 삼삼(三三)과 고관(高官)이 추천하여 대개 5명 정도가 특제(特制)되었는데, 그럼으로써 청백리가 많이 난 씨족들은 그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 줄을 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한다"는 <능엄경>의 가르침처럼 조상의 선공덕으로 자손이 잘 살게 된 교훈을 보여준다.

물론 많은 공직자들은 아직도 스스로 '청백리'임을 자임하면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가 되는 이들은 권력을 잡고 뇌물에 길들여진 공직자들이다. 이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께 서 설하신 바른 공직자상을 되뇌어보고 이 시대의 청백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한다. 잔인하지 않아야 하며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안되느니라." <불반니항경> 김재경 기자

# 일상화된 폭력·쾌락주의가 더 위험

## 불자 세상보기

최근 미국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하다. 그리고 그 영향은 세계의 정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간의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접속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섹스 관련 사이트였는데 최근에는 테러 관련 사이트의 접속건수가 급증해 인터넷상 최초로 1등 검색어가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 섹스와 테러의 어떠한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는가? 이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들에게는 아무래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쾌락과 가학성에 있는 것

같다. 쾌락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쾌락이라는 어휘가 갖는 부정적인 인상을 제외한다면, 쾌락은 즐거움이며 즐거움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폭력성이다. 사실 성은 본래 조화와 합일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것은 이에 내포되어 있는 폭력적 요소 때문일 것이다. 합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 여기에는 필히 폭력이 등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테러는 그 자체로 폭력의 최고 형태다. 할리우드의 연출가들도 감히 상상

### '테러' 인터넷 접속 1위

### "폭력의 순환 끊고 생명의 세계로 가자"

하지 못했던 폭과 장면들이 온통 TV화면을 점령하고, 신문들도 이에 질세라 온갖 해설기사를 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가해자의 분노만이 비칠 뿐이다.

그러면 폭력성은 우리에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본성과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리학자 용이 세대간에 전승되는 집단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폭력성이 단순히 개인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할 것 같다.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길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폭력성의 연원에 관한 것은 넘겨 두고 우리가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반성해야 할 대목은 폭력은 폭력을 낳을 따름이라는 점이다. 폭력은 폭력으로 대치하면 무한 소급의 폭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폭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폭력 이외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폭력의 해소만이 폭력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우리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연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간의 긴밀한 관계가 겹치고 겹쳐 다함이 없다는 불교의 지혜이다. 이렇



정호연

충북대 교수 철학과

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생명도 고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연기의 법칙은 폭력의 순환을 끊고 우리를 깊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한다. 오늘날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그리고 쾌락주의가 득세하는 것은 상즉(相即)·상인(相入)의 가치가 상실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테러에 관한 기사가 모든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그럼으로써 폭력이 재생산되는 세대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과 사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동정·연민·분노·정의 따위로 포장한 또다른 형태의 폭력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폭력의 일상화. 이것이 더 위험하다.

# 열린마당

## 제도화 앞둔 '문화유산 해설사'

### "사찰 지원·신도 참여 기대"

최태현 <문화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누구나 한 번쯤은 문화, 유적, 사찰 등 우리의 문화관광지를 방문하였을 때 그 문화유산에 담긴 뜻을 정확하게 흥미롭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 해설사 제도는 이러한 국내외 관광객 욕구를 충족해 주고 이를 통해 문화유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이를 정착시키고 법적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월 14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에 이를 포함시킨 바 있다.

물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찰에 배치된 문화유산 해설사 가운데 일부가 사찰문화나 사찰예절, 불교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사찰 측과 잡음을 빚기도 했다.

이는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배치 지역이 불교문화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나 유물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사찰에 배치된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해 사찰측에서 스님이 나서 보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사찰에 배치된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사람들도다. 사찰측에서도 다소 미흡하더라도 좋은 뜻을 가지고 이들을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올해 추진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우선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찰측에 이를 알려 사찰문화에 대해 더 자부심과 애착을 가진 유능한 신도들이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에 많이 참여하여 충실한 해설활동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태현

### "실습위주 장기연수 필요"

이강근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설사' 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설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설사 교육 자체가 단기양성 코스라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단기 코스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애초 취직하는 달리 단순한 유물 해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총 40시간 정도의 임기식 강의를 받았을 뿐 문화재의 역사적 배경까지도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지 못했다.

교육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는 것도 한몫 거든다고 볼 수 있다. 해설사는 교육을 마친 뒤 시험 과정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지금의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 실제 절에 배치됐을 때 담당 외국인에게 '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문화유산 해설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장에 투입됐을 때 실제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 된다. 실무 실습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론 교육만으로 해설까지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지금 교육과정에도 실무교육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남이 설명하는 것을 듣는 방식이지 자기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절에 대해 안다는 것과 막상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육받은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학도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설립 목표가 다르듯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광 가이드와는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이며, 이들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강근

### "사찰 예절·교리 교육 필수"

진병길 <신라문화진흥원 원장>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최근 관련 내용을 관광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입법예고했다. 골목 없는 공장인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강사와 해설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불교문화재를 설명하는 해설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찰과 불교문화재를 안내할 해설사를 배치할 때 종교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국사 대웅전 구역 설명함에 있어 석가탑은 석가여래를 상징하고 다보탑은 다보여래를 상징하며 대웅전 구역은 법화경에 근거한 배치구조라 할 때,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법화경, 그리고 탑의 발생과 관련된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등을 모두 알아야 설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재에 담긴 선조들의 신앙까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참다운 문화재 해설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모두 교육할 경우 상당기간이 걸리며 교육을 한해도 기본적인 종교성향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불교적인 소양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풍부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불교사상이나 교리, 사찰예절 강의를 뒤따라야 한다.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는 문화재는 단순한 조각이나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설사를 선발할 때 민간문화단체와 불교기관과 연계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해설사를 추천 받아 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적지 배치에 있어서도 반드시 해설사의 종교성향을 검토한 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 내용 중에 불상과 탑, 불교기초교리, 사찰예절 등은 필수과목으로 넣어야 한다.



진병길

##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운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쫄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출신식(2개월 50만원), 송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수중구루(2개월 150만원), 유허강장(2개월 50만원), 유허된장

###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사주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유고(경유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가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시미유」 성분순 대량추출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류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 제조 의 료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송선식(松仙食)」, 「송효소정액(松解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 (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